

北 성도절 법회 동영상 공개

북한이 웹사이트를 통해 성도제 일 법회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북한이 개설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는 지난해 12월 30일 평양시 만경대구역 음악산 법운암에서 봉행된 '성도절 기념 조국평화통일 기원법회'의 내용을 담은 영상물을 최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동영상은 조선불교도연맹 평양시위원회 위원장 지성 스님과 부장 수덕 스님, 법운암 신도대표 김장보살을 비롯, 신도들이 참석해 봉행한 성도절 법회를 1분 54초로 편집한 내용.

동영상에서 조선불교도연맹 평양시위원회 부장 수덕 스님은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고통없이 평온하게 사는 이상 정도를 염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는 5분 내외의 법문, 안국사, 용화사 등 북한에 위치한 사찰 소개 동영상도 각각 제공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해커기장 찬반 주민투표 다음달 14일 부안서 실시

부안 방사성폐기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총선 60일 전인 2월 14일 부안지역에서 실시된다.

부안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이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1월 15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안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총선 60일 전인 2월 14일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며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박원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와 하승수 변호사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도법 스님(남원 실상사 주지)을 비롯 총 22명으로 구성했다. 1월 25일 주민투표방안을 공고하고, 2월 15일 개표 및 결과를 공표한다. 주민 투표에 관한 운동은 투표일 전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찬반 양측의 참석을 보장하는 TV 토론회도 개최된다. 주민투표 결과는 과반수 득표로 확정되며, 유효득표수가 가부동수이거나, 투표율이 1/3미만 시 어느 일방도 선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된다.

남동우 기자

영문 불교성전 나왔다

진흥원, 특급호텔 등에 배포

제반경전과 논소 조사어록 등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을 뽑아 영문으로 번역한 불교성전이 나왔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문자)은 한국불교에 관심있는 외국인이나 해외포교에 열망있는 국제포교사를 위해 <한영불교성전>을 최근 발간했다. <한영불교성전>은 국내 특급호텔과 관광업소, 포교기관, 단체 등에 배포된다.

조기불교에서부터 대승불교, 선불교까지 망라하고 있는 이 성전은 한역대장경과 남전대장경에서 내용을 뽑아 현대생활에 맞게 영문으로 번역,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불교전래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의 특성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사'와 일반인이나 불자들의 실제 수행에 도움을 주는 좌선의 및 대념처경, 안반수의경을 집약한 '불교의 수행법'도 부록으로 실려있다.



실험을 기했다.

권기종(동국대) 심재룡(서울대) 정병조(동국대) 조성택(고려대) 교수 등 국내외 저명한 불교 및 철학 종교학자들이 집필했고,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어권의 불교학자들이 최종 감수를 담당해 내용의 충실함을 기했다.

송석구 편집위원장은 "현대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한 불교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불교경전의 정수를 주려내 <한영불교성전>을 발간했다"며 "성전을 통해 불교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한국불교의 진면목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상설 외국인 선센터 연다

조계종, 이르면 3월부터 운영

한국 간화선이 세계화에 성공 한 발을 내딛는다. 외국인에 기간에 관계없이 참선 수행할 수 있는 '외국인 선센터'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정해진 수행 기간 없이 외국인에게 일년 내내 참선 수행을 지도하는 상설 수행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마하 수행 센터 등이 위빠사나 수행법의 세계화에 큰 몫을 한 예에서 보듯, 언제든 와서 자신이 필요한 만큼 수행할 수 있는 '상설 외국인 선센터'는 한국 선불교의 세계화에 한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포교원은 이를 위해 2월 중 서울 회계사, 강화 연등선원, 대전 자광사 등 영어로 외국인의 참선 지도가 가능하거나 실제로 외국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절 가운데 '외국인 선센터'를 지정하고 강사나 프로그램

등을 확정, 빠르면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황건의 포교과장은 "템플스테이가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단기적인 관광 프로그램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불교를 보다 깊이 있게 체험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았다"며 "승산 스님이 미국에 세운 '프로비던스 선센터' 등의 사례를 분석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 빠디마 스님의 수행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위빠사나 수행을 하고 있는 김재성씨는 "언제든지 와서 원하는 만큼 한국 선불교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불교 세계화에 큰 의미를 가진다"며 "장기적으로는 간화선 수행 체계 확립이나 교육 시스템 마련, 외국인 언어에 관계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인력 확보 등이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워크숍에서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주제 발제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은 창조적 활동"

불교환경연합 창립준비위 워크숍

"불교환경운동은 단순한 유산자의 보존과 전달이라는 차원으로 서만이 아니라 불교계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장점을 드러내고, 살려가는 창조적인 활동이다"

이병인 교수(밀양대 환경공학과)는 1월 14-15일 서울 관문사(주지) 준광와 안산 일대에서 열린 불교환경연합(가) 창립준비위원회 실무위원회 워크숍에서 '불교환경운동의 중요성과 필요성' 주제 발제를 통해 불교환경운동의 중요성을 이렇게 평가했다.

이 교수는 또한 "불교환경운동은 시대적 추세이며, 국가와 기타 사회단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실질적인 환경보전

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며 불교환경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워크숍에서 정성운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불교환경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에 불교환경연합이며, 어떤 조직이어야 하나' 주제 발제를 통해 "출제자를 비롯한 전문 활동가의 절대적 부족과 재정적 뒷받침 부재가 불교환경연합 출범의 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한국환경운동의 평가와 전망' 주제 발제에서 "북한산 관동도로 강행은 우리 사회의 개발지상주의가 얼마나 강력하고 집요한지 확인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동우 기자

미륵산 케이블카 반대 환경스님 삼보일배

최근 용화사 주지 선곡 스님이 케이블카 설치 청원서를 통영시의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용화사 선방 스님이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백지화를 요구하며 삼보일배에 나섰다.

동영환경운동연합 박태민 사무처장은 "용화사 선방인 관음암 당대선원에 있던 환경 스님이 선곡 스님의 독단적 결정에 반발해 설치 백지화 삼보일배에 나섰다"고 1월 15일 밝혔다.

환경 스님은 "1월 15일부터 용화사에서 통영시청까지 5km 구간을 매일 진행한다"며 "케이블카 설치 백지화 해 하루빨리 선방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남동우 기자



사진제공-연합신문

"가을 농사 짓고 나면 개토하듯이..."

법장스님 여야 대표에 '일침'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한 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에게 정치권의 자기만 성과 변화를 주문했다. 또 개혁은 하되 민생을 먼저 보살피는 정치를 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법장 스님은 1월 13일 신년인사차 총무원을 방문한 최병렬 대표에게 "가을 농사짓고 나면 겨울에는 개토를 하는데, 이런 것처럼 오늘의 여러

유음 내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교에 참회라는 말이 있는데, 자기 잘못을 시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으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며 정치권의 자기반성을 촉구했다.

법장 스님은 또 "우리나라가 걸어왔던 현실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쉽지 않지

만 욕망자를 낳기 위한 욕망임이라 생각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달라"며 변화를 주문했다.

당 의장 당선 인사차 15일 방문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에게는 "개혁은 무엇보다도 안정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우면 그 개혁은 실패한 것이며, 국민이 편안하고 안정된 속에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안정 속의 개혁을 주문했다.

한명우 기자

인도 국제불교대회에 법장 스님 등 공식 초청

팔타 사라피 페이 주한 인도대사가 1월16일 조계종 법장스님을 예방하고 오는 2월 17일 인도 부다가야에서 열리는 국제불교대회에 참석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번 대회는 △불교와 현대사회의 관계 △각국 불자 교류 증진 등의 주제로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다.

인도는 현재 전 세계 300여 불교 지도자들을 초청한 상태며, 한국 스님으로는 법장 스님 외에 범어사, 월정사, 불국사, 직지사, 해인사, 통도사 등의 주지 스님도 초청할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북과 공작원 위폐 안치 사찰 불자들 관심 쏠린다

'실미도' 흥행 여파

영화 '실미도'의 영향으로 무연고 북과 공작원(HID 첩보부대)의 위폐가 안치된 서울 봉은사, 양양 영월사, 국군 정보사령부 교육대 망월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북파됐다 사망하거나 실종된 북과 공작원 8천 여명중 사망 실종한 북파공작원 위폐는 봉은사에 1987, 영월사 5백여, 망월사 5천여기 등 총 5천 5백64기가 있다.

국가에 목숨을 바쳤지만 임무의 특수성 때문에 군번과 계급을 갖지 못한 북파공작원의 위폐가 사찰에 안치된 것은 1960년대 말, 당시 정보기관 관계자들의 연구 없는 국가유공자의 위폐를 안치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위폐는 검정색으로 이듬해 20cm 크기의 작은 명패에 새겼다.

사찰에서 부처님오신날 추모제를 지내고, 첩보부대를 유지해온 국군정보사령부 군인들이 각종 기념일에 간혹 들린다. 김원우 기자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4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4기생을 모집함

Table with 2 columns: 1년 교과목, 2년 교과목. Lists subjects like Buddhist Philosophy, Buddhist Psychology, Buddhist Law, etc.

Table with 7 columns: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Details enrollment numbers, requirements, and dates.

4. 개강일시 불교학과 : 2004년 2월 7일 (토)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 불교미술학과, 다도학과 : 2004년 3월 4일, 9일, 10일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 (조계사일) 02)733-033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제주 : 예진 수보리 성당 064) 743-4184

\* 특전사항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인문학과)

불교문학인 양성과 전문프로인을 위한

불교문예창작과(3년 과정) 신규개설 !!

문예창작학과는 본격적으로 문예작품을 창작하려는 사람이거나 문학과 미학(美學)내지 불교적 가치관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자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詩), 소설(小說), 희곡(劇), 수필(隨筆), 시나리오(TV극본·라디오드라마 포함), 문학비평(文學批評)수필(隨筆) 등 각 장르별 문학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상하면서 실제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

Table with 3 columns: 학과, 교과목, 교수. Lists subjects like Buddhist Literature, Buddhist Art, and faculty members.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